

# 저소득 가정의 부모자원 및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Causal Study of Parenting Efficacy based on the effect of Parental Resources and Parenting Stress in Low income family

숙명여자대학교 가족자원경영학과  
교 수 박 미 석\*\*  
숙명여자대학교 가족자원경영학과  
박사수료 김 지 은\*\*\*

Department of Family & Resourc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rofessor Park, Mee Sok*  
Department of Family & Resourc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h.D. Candidate Kim, Jieun*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impact of parental resources and parenting stress on parenting efficacy in low-income families. Furthermore, in order to verify whether parental resources function as a resilience factor, a structural model was established to assess the suitability and influence of the variables. A total of 603 parent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between the ages of 9-18 were selected from the data from Children and Adolescents Comprehensive Status Research (2009) by the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For the analyses, SPSS WIN 18.0 and AMOS 18.0 were utilized. The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suitability of the model was confirmed with variables presenting a satisfying fit. Second, parental resources had a negative effect on parenting stress and a positive effect on parenting efficacy. Third, parenting stress had a negative effect on parenting efficacy. Finally, a

\* 본 연구는 2011년도 숙명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주저자 : 박미석(msp@sm.ac.kr)

\*\*\* 교신저자 : 김지은(cogito@sm.ac.kr)

test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supports the hypothesis that parental resources have a significant direct effect as well as an indirect effect through parenting stress on parenting efficacy. The implications for further studies and practice were discussed.

**Key Words** : 가족탄력성관점(family resilience perspective), 저소득 가정(low income family), 부모자원(parental resource), 양육스트레스(parenting stress), 양육효능감(parenting efficacy).

## I. 서론

가족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인류역사상 가장 오래된 제도이다. 오랜 세월 동안 가족은 다양한 문화 속에서 이어져 오며 형태 및 기능이 변화되어왔다. 특히 현대사회는 다원주의를 바탕으로 가족에 대한 인식과 모습에서 그 어느 때 보다 다양한 변화들이 공존하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대사회에서도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은 가족의 형성 및 발달 과정에서 부모의 가장 영향력 있는 과업이자 사회적 규범으로 여전히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부모는 자녀의 인성형성과 성역할 발달 사회화 등에 일차적 영향력과 책임이 있으며, 바람직한 부모 역할은 건강한 가정의 중요한 기본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

가족은 가족생활주기에 걸쳐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며 변화와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요인인 경제적인 환경은 가족의 생존과 성장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자 스트레스원(stressor)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과거에 비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현대사회이지만 가정의 경제적인 환경은 여전히 스트레스 요인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1 저출산·고령화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세계 최저수준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는 우리나라 저출산의 주된 원인이 ‘자녀의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1위, 60.2%)으

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2). 이러한 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인 요인이 자녀의 출산부터 양육 과정까지의 전반적인 부모의 의사결정 및 태도에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나타낸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비율은 1990년 7.1%에서 2011년 15.2%에 이르며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경제의 위기가 가족의 해체를 비롯한 여러 가족문제를 야기하고, 생계형 범죄 및 가정폭력 등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사회문제화 되는 현상도 급증하고 있다. 저소득 가정은 대체로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가정해체, 부부간 불화 등 복합적 문제들을 나타내며 그로인한 심한 가족스트레스를 겪는다(김명순, 2010 : 62). 또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부모의 양육행동을 통하여 아동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보고되면서(Conger et al., 2000; Jackson et al., 1998) 자녀의 주 양육자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양육행동 등과 관련되는 변인들을 고찰하기 위한 연구들이 가정의 경제적 환경과 관련하여 이루어져왔다(이경하·서소정, 2009; 이경선, 2011; 이지혜·김정옥, 2009; 홍순혜·이숙영, 2009). 최근에는 부모의 역할수행과 관련한 양육효능감에 대한 관심 증가로 양육스트레스, 양육 행동, 양육지식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과의 관계를 탐색하는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데(Teti, D. M. &

Gelfand, D. M, 1991; 김미숙·문혁준, 2005; 김도희·이정은, 2009; 방한별·박정윤·김양희, 2008; 이인학·박지은·최성열, 2010; 장성에·유연옥, 2008; 정선영·정현숙, 2012) 가족의 강점에 주목하는 가족 탄력성(family resilience)관점에서 양육의 주체인 부모자원과의 관계를 함께 고찰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가족탄력성 관점은 가족의 문제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가진 강점을 찾고, 위기 상황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는 요소들을 발견하는데 초점을 둔 관점이다(Hawley & DeHann, 1996; 김은한·유서구, 2012; 박주연·김경신, 2012). 이러한 관점은 가족이 가진 강점 즉 가족의 긍정적인 특징 및 자원 등이 가족이 직면하는 다양한 위기 및 스트레스 상황을 건설적으로 극복하게 할 수 있다고 본다. Bandura의 자아효능감 개념을 양육차원에 적용시킨 양육효능감은 자녀를 양육하며 발생하는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자녀를 바람직하게 양육하는 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지각을 의미한다(김지현, 2011; 최형성, 2002). 이는 가족이 가지고 있는 강점에 초점을 맞춘 가족탄력성 안에서 이해가 가능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의 잠재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자원들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둔 가족탄력성 관점은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자원, 양육스트레스의 효과를 탐색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 중요한 이론적 타당성을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현재 우리사회의 아동·청소년은 잠재성이 매우 높은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성장 및 발달에 가장 의미 있는 영향을 주고 있는 부모의 양육은 가정 자원 특히 부모자원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가정자원은 선행연구에서 주로 가정의 소득 및 가족의 인적 자원 등을 동시에 고려해 다

루어져왔다(이선애, 2009; 이은우, 2006; 이주리, 2009; 조성희, 2003; 추상엽·임성문, 2007). 가정의 낮은 소득수준 및 빈곤은 부모에게 위기로서 작용하며 아동의 발달에도 직·간접적으로(Conger et al, 1994)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자원 결핍을 보완하게 하는 인적 자원 측면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가족의 바람직한 적응을 도모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가족탄력성 관점을 바탕으로 가정 자원 중 아동·청소년 자녀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가족구성원인 부모의 인적 자원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부모자원이 양육스트레스와 함께 양육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 관계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아동·청소년이 잠재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부모자원의 영향력을 설명하여 보다 바람직한 심리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으로 경제적 자원이 중요시되는 현대사회에서 탄력요인으로서 가정의 인적 자원의 중요성 및 가능성을 새롭게 조망하도록 시각을 전환시키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가족 탄력성 관점(family resilience)

탄력성(resilience)이란 역경의 상황에도 이를 잘 극복하며 살아가는 능력을 의미한다. 탄력성의 초기 개념은 역경의 상황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긍정적으로 잘 기능하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연구에서 시작되었고(Masten & Garmezy, 1990; Salami, 2010) 가족탄력성 관점은 개인의 탄력성에서 시작된 연구가 축적되고 체계적인 관점으로 확장되면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김은한·유서구,

2012: 151). 가족탄력성관점의 대표적인 학자들로 는 McCubbin과 Walsh를 들 수 있다. McCubbin과 McCubbin(1993)은 가족스트레스 이론을 발전시켜 가족탄력성을 가족 차원의 구조로 보고 이를 강조하면서 ‘가족 스트레스 조절 및 적응의 탄력성 모델(The Resiliency Model of Family Stress)’을 확립하였다. Walsh는 가족탄력성을 신념체계, 조직유형, 의사소통과정의 세 가지 요인으로 밝히며 가족의 위기나 스트레스 보다는 이에 대한 적응과 과정에 초점을 두어 가족의 역동적 특성을 반영하였다(박지현·김태현, 2011: 233).

가족탄력성과 관련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McCubbin과 McCubbin(1988)은 가족탄력성을 가족이 위기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변화에 적응하여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가족의 특징, 자원 및 자산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스트레스에 직면한 가족의 적응 자질에 초점을 두고 특히 대처와 인내 그리고 생존을 증진시키는 과정을 강조하는 것이다(McCubbin et al, 1993). Walsh(2002)는 가족이 도전과 위기를 경험한 후에 이전보다 강건해진 것은 단순히 생존한 것이 아니라 성장과 장점을 갖게 된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이 가족탄력성 관점은 가족의 문제에 주목해 결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족이 가지고 있는 강점에 초점을 맞춰 위기 상황의 가족이 보다 잘 적응 하도록 하는 가족의 특징 및 속성에 대해 설명하는 개념이다(Hawley & DeHann, 1996: 2). 이러한 관점은 가족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가족자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회복가능성을 가족 안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는 급속히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위기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가족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가족탄력성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확대되어왔다. 초기 가족탄력성에 대한 개념연구에서부터 출발하여 (Hawley & Dehann, 1996; Walsh, 1998), McCubbin

의 탄력성 모델을 적용한 연구(Kosciulek & McCubbin, 1993; Olson et al, 1999; Lin, 2000)와 가족탄력성의 구성요인 및 부모 및 자녀와 관련된 가족의 적응에 대한 연구(Voydanoff & Donnelly, 1998; Johnson et al, 1998)등으로 연구가 점차 확대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가족탄력성의 관점에서 저소득 가정의 부모 자녀와의 관계를 다룬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외연구로 Finn과 Checkoway(1998)는 탄력성의 관점을 적용하여 문제아동으로 인식되던 아동들을 ‘지역사회에 필요한 유능한 자원’의 시각으로 전환하여 바라보고자 하였다. Coger와 Conger(2002)는 가족탄력성에 대한 중단연구를 경제적 문제와 청소년의 성장에 초점을 두어 수행했는데, 경제적 역경에 처한 부모는 배우자의 지지 및 효과적인 문제해결기술 등에 의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의 경우 부모 및 형제자매 등의 지지에 의해 그 탄력성이 증진된다고 보았다. 이 관점의 국내연구로 박현선(1998)은 빈곤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을 볼 때 가족은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모두로 작용할 수 있는데, 위험요인보다는 부모의 양육태도 등의 보호요인이 더 큰 영향력을 갖는다고 하였다. 김은한과 유서구(2012)는 가족탄력성이 빈곤아동의 사회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면서 가족탄력성의 하위요인이 사회적 역량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특히 가족강점과 가족자원은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이 통제된 후에도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보고했다.

저소득 가정의 부모 및 아동·청소년 자녀를 다룬 가족탄력성 관점의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가족탄력성의 관점은 가족이 빈곤과 같은 특정 위기 상황에 직면한 경우에도 가족이 이미 가지고 있는 탄력 요인 정도에 따라 오히려 역경을 극복하고 이전보다 더 성장할 수도 있다는 의미 있는 결과들을 제시한다. 이처럼 가족탄력성의

관점은 경제적 위기와 스트레스 상황을 문제로 인식하기보다는 가족을 새롭게 적응하게 하는 도전으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도 저소득 가정의 낮은 소득수준과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에 문제요인이 된다고 보기보다는 하나의 도전이 된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도전과 위기상황을 조절하고 극복하게 만들어 가족의 실제 역할을 강화시키게 하는 탄력 요인으로서 가정자원 중 아동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자원이 양육스트레스와 함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한다.

## 2. 부모자원

부모는 자녀의 성장, 발달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의 하나이며 아동후기 발달의 예측 요소로서 성인이 된 후의 성격특성이나 인성발달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김신정·김영희, 2007: 172). 자녀의 발달과 성장을 위해 가정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 삶의 가치관, 태도, 생활습관의 롤 모델이자 자녀가 접하는 가정 자원 중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된다. 가정 자원은 가족구성원들의 가치실현과 욕구충족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제해결의 필수적인 요소이다(Deacon & Firebaugh, 1988). 학자들은 가정 자원을 인적·비인적 자원, 대인적·경제적 자원, 인적·경제적·환경 자원 등으로 분류해왔는데, 이에 따라 많은 선행연구들은 가정자원을 파악할 때 하위변인으로 가정의 소득 및 가족의 인적 자원 등을 동시에 고려해왔다(이선애, 2009; 이은우, 2006; 이주리, 2009; 조성희, 2003; 추상엽·임성문, 2007). 이 중 가족의 인적 자원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부모에 초점을 맞춘 변인으로 선정되어 다루어져 왔으나 부모자원을 별도의 변인으로 다루어 수행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가정의 부모자원을 변인으로 다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에서 가정자원의 주요변인으로 다루어졌으나 부모자원을 별도로 구성하여 수행한 연구들이 매우 적었다. 또한 부모자원의 측정은 주로 부모의 소득 및 학력으로 범위가 제한되어 이루어져(Battle, 2002; Eamon, 2005; 김광혁, 2007; 박창남·도종수, 2005; 이명숙·이미선·이정우, 2003; 이선애, 2009) 자녀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부모의 인적 자원의 영향 및 효과성을 파악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이를 보완할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경제적 자원이 매우 부족한 저소득 가정에서 부모가 가진 인적자원의 영향력은 가족탄력성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들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부모자원을 ‘가정에서 부모가 가진 인적 자원으로 정의해 범위를 한정하여 개념을 구조화하고자한다. 이를 위해 인적 자원을 개인적 자원(personal resources)과 대인적 자원(interpersonal resources)으로 세분화한 Gross와 동료들(1980)의 기준에 따라 개념을 구조화하여 부모개인적 자원과 부모상호간의 자원, 부모자녀상호간의 자원으로 구성하였다. 부모자원의 측정을 위하여 부모 개인적 자원에는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주요인적 자원으로 선정되어온 학력을 포함시켰다. 다음으로 부모상호간의 자원으로는 부부관계의 질을 반영하는 결혼만족도를 포함시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자 자원인 부모가 서로를 사랑하고 만족하는(김명자 외, 2009) 부분을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모자녀상호간의 자원으로는 의사소통을 포함시켰다. 상호작용적 과정인 의사소통은 부모 자녀 간의 공통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상호 간의 기능적이고 원만한 관계가 성립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부모자녀의 문제를 극복하고 결속을 강화시키는데 중요한 작용을 할 수 있다(홍영란, 2009 : 393)

### 3.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는 양육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인지적인 요소로서(Abidin, 1992), 부모가 자녀양육으로 인해 인지하는 어려움 정도나 부담을 의미하며(이주옥, 2008 : 42), 소득 등 가정환경, 부모와 자녀 및 가족의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Abidin, 1992; Cmic & Acevedo, 1995) 동시에 부모의 심리적 적응 및 자녀와의 관계를 더 잘 예측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보고되어왔다(안지영, 2001: 22-23). 특히 선행연구에서(Alber, Jones, & Cohen, 2000; McLoyd, 1998 Raikes & Thomson; 2005) 가정의 경제적 환경은 양육스트레스와 부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어 저소득 가정의 양육스트레스는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양육효능감은 부모로서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 것으로(Johnston & Mash, 1989 : 167) 부모의 양육행동 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상호작용 및 아동 청소년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주목받으면서 양육관련변인들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수행되고 있다.

부모의 양육효능감이나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행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다(김현미·도현심, 2004; 안지영·박성연, 2002).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크게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의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와 양육효능감을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매개효과로 검증한 연구들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에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효능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를 포함한 모든 스트레스는 양육효능감과의 관계에서 대체로 부적인 영향을 주며(Abidin, 1992; 김현미 외, 2004; 안지영, 2000; 최형성 2001)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어머니들이 지각하는 양육효능감은 낮은 것

으로(이주옥, 2008) 나타났으며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송미혜 외, 2007). 한편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어머니의 우울 증상을 매개로하여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보고되었다(김진이, 2011).

양육효능감을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매개효과로 검증한 연구들에 따르면 양육효능감이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 연구들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른 연구들을 살펴보면 영아기(이인학 외, 2010)와 유아기(Leerkes & Crokenberg, 2002; 김미숙·문혁준, 2005) 그리고 아동기(최형성, 2005)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한편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이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유아의 정서적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보고도 있다(전인옥이경옥, 1999).

종합하면 선행연구에서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은 양육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으로서 지속적으로 다루어졌으며,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효능감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변인으로 보고되어왔다

### 4. 부모자원과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의 관계

부모의 자원을 하나의 변인 군으로 하여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본 연구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구조화한 부모자원의 각 하위구성요소별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부모개인적 자원으로 구성된 학력은 양육스트레스와 유의한 상관이 있는 변인으로 보고된 연구(김기현, 2000)와 유의하지 않다고 보고된 연구(박복매·문혁준, 2008)가 있었고, 양육효능감에는 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보고되어왔

다(문태형, 2002; 양선미, 2007; 이정신·최영희, 2010; 전주혜·박정윤, 2010). 다음으로 부모상호간의 자원으로 구성된 부부관계의 결혼만족은 특히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는데 유의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박혜미, 1994; 전춘애·박성연, 1996; 옥경희·천희영 2011 : 207 재인용),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있었다(김정주, 김용미, 2008). 마지막으로 부모자녀상호간의 자원으로 구성된 의사소통은 양육스트레스에 부적인 상관이 있다고 보고되었고(박복매·문혁준, 2008), 부모자녀 관계와 의사소통은 주양육자의 심리·정서적 상태와 연합하여 아동의 문제행동 또는 적응에 영향을 주는 주요변인으로 보고되었다(민하영, 1991. 홍순혜·이숙영, 2009 : 143 재인용). 또한 부모의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통한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이 어머니의 효능감 증진과 양육스트레스 감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김정효, 2010) 양육효능감에 있어 의사소통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을 통해 살펴본 결과, 본 연구의 부모자원 구성변인들은 다양한 상반된 결과가 함께 제시된 학력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양육스트레스에 부적인 영향을 주고, 양육효능감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종합하면 양육의 주체인 부모의 자원에 초점을 두어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과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들은 그리 많지 않았고 양육효능감에 대한 연구가 영·유아 부모에 집중되어 있어 아동·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 필수불가결하게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부모로서의 효능감을 증진시키도록 작용하는 변인을 탐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하겠다. McCubbin과 Patterson(1983)에 의하면 스트레스원에 의해 받는 부정적인 영향의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자원(resource)’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가족탄력성 관점을 기반으로 경제적인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정에서 이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효과를 검증해보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저소득 가정의 아동·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자원,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 그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자료를 얻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저소득 가정의 부모자원은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저소득 가정의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저소득 가정의 부모자원,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의 관계는 어떠한가?

### III.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보건복지가족부 「한국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2009)의 원자료를 사용하여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을 가진 저소득 가정에서 주 양육자를 아버지, 어머니로만 한정하여 9세에서 18세까지의 아동·청소년을 둔 부모 총 603명을 추출하였다. 조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이 87.4%, 남성이 12.6%로 어머니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가정의 주 양육자 역시 어머니로 응답한 경우가 89.2%로 아버지(10.8%)에 비해 어머니가 주로 자녀를 양육하는 특성을 보여 어머니가 여전히 자녀 양육의 일차 책임자(Mash & Johnston, 1983; Elder, Eccles, Ardel, & Lord, 1995, 최형성, 2002 : 6

〈표 1〉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N=603)							
변인	구분	빈도	%	변인	구분	빈도	%
성별	남	76	12.6	주 양육자	아버지	65	10.8
	여	527	87.4		어머니	538	89.2
연령	20대 이하	8	1.3	학력	중졸이하	174	28.9
	30대	184	30.5		고졸	374	62.0
	40대	359	59.5		대졸이상	55	9.1
	50대 이상	52	8.6		100만원 미만	497	82.4
자녀 연령	9-11세	185	30.7	월평균 소득	100만원~150미만	81	13.5
	12-14세	203	33.7		150만원~200미만	20	3.3
	15-18세	215	35.7		200만원 이상	5	0.8

재인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40대가 59.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대(30.5%), 50대 이상(8.6%), 20대(1.3%) 순이었다. 자녀의 연령은 9~11세가 30.7% 12~14세와 15~18세가 각각 30.7%로 9~18세 사이의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조사대상 부모의 학력은 고졸이 62.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졸이하(28.9%), 대졸이상(9.1%)순이었다. 조사대상 가정의 월평균 총소득은 100만원 미만인 82.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00만원에서 150만원 미만(13.5%), 150만원에서 200만원 미만(3.3%), 200만원 이상(0.8%) 순이었다.

## 2. 연구도구

「한국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2009)에서 조사 대상에 적합한 조사도구들 중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도구는 다음과 같다.

### 1) 부모자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부모자원의 개념을 부모의 인적 자원에 초점을 두고 구

조화하여 부모개인적 자원과 부모상호간의 자원, 부모자녀상호간의 자원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부모개인적 자원에는 교육수준을 반영한 학력을, 부모상호간의 자원으로는 결혼만족도를, 부모자녀상호간의 자원으로는 의사소통을 포함시켰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실태조사 데이터의 한계로 등간변수가 아닌 초졸이하, 중졸, 고졸, 초대졸, 대졸, 대학원이상 순의 학력 서열변수로 측정하였다. 결혼만족도는 현재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게 측정되게 하였다. 의사소통은 부모와자녀의 의사소통에 대한 3문항(‘나는 아이가 보이는 흥미나 관심거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도움을 준다’, ‘아이는 부모와 의사소통(대화)할 때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다’, ‘아이와 얘기할 때 대화에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편이다’)으로 구성하였다. 의사소통 척도는 4점 리커트 척도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Cronbach’s  $\alpha$  값은 .61로 Nunnally(1967: 226)의 최소한의 기준(.05)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에 사용하였다.

### 2) 양육스트레스

본 연구에서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양육으로 인해 인식하는 어려움에 대해 측정하는 2문항(‘우리 아이는 나를 지치고 힘들게 한다’와 ‘나는 아이를 돌보느라 내 생활을 포기하고 있다’)으로 구성되었다. 척도는 4점 리커트 척도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 '매우 그렇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Cronbach's  $\alpha$  값은 .61로 나타났다.

### 3) 양육효능감

본 연구에서 양육효능감은 부모로서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의 능력의 인식을 의미하는(Johnston & Mash, 1989) 3문항(‘나는 현재 자녀(들) 잘 키우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자녀(들)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나는 자녀(들과)와의 관계에 대해 만족한다’)으로 구성되었다. 측정은 4점 리커트 척도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 '매우 그렇다'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Cronbach's  $\alpha$  값은 0.78로 나타났다.

###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 Win18.0을 사용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위해서는 AMOS(Analysis of Moment Structures) 18.0을 사용하였다.

먼저 관련변인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고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서열, 등간척도로 구성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Spearma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위해 본 연

구에서는 Anderson과 Gerbing(1988)이 제안한 검증단계 방법에 따라 측정모형 검증을 거친 후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 및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Chi-square와 df값, TLI, CFI, RMSEA 지수를 바탕으로 산출하여 평가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모형분석에 앞서 설정한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아래 <표 2>와 같다. 부모자원과 양육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부모개인자원인 학력은 양육스트레스와 유의한 상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상호간의 자원인 결혼만족도와 부모자녀상호간의 자원인 의사소통은 모두 양육스트레스 중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 변인과 유의한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자원과 양육효능감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학력은 양육효능감 변인 중 부모효능감 관련 변인과 유의하게 정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결혼만족도와 의사소통은 양육효능감 모든 변인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부모자원인 학력, 결혼만족도 의사소통 수준이 높을수록 대체로 부모가 인지한 양육효능감 정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보면 양육스트레스 중 부모의 고통 변인과 양육효능감 중 부모효능감 변인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한 부적인 상관관계가 성립되어 대체로 부모가 받는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의 인지정도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표 2〉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N = 603)

변수	1	2	3	4	5	6	7	8
부모자원								
1. 학력	1							
2. 결혼만족도	.052	1						
3. 의사소통	.093*	.048	1					
양육스트레스								
4. 양육스트레스 1	-.062	-.131***	-.310***	1				
5. 양육스트레스 2	-.028	-.050	-.078	.441***	1			
양육효능감								
6. 양육효능감 1	.085*	.163***	.324***	-.263***	-.045	1		
7. 양육효능감 2	.119*	.134**	.306***	-.253***	-.095*	.668***	1	
8. 양육효능감 3	.048	.098***	.413***	-.308***	-.159***	.448***	.462***	1

\* $p < .05$ , \*\* $p < .01$ , \*\*\* $p < .001$

## 2. 측정모형의 검증

연구자는 구조방정식 연구모형 분석을 하기 전에 먼저 연구모형에 포함된 잠재변수(latent variable)와 관찰변수(observable variable)간의 관계를 분명하게 설정하여야 한다(Blalock, 1971). 측정모형에서는 잠재변수와 관찰변수간의 인과관계에 따라 지표가 반영적 지표(reflective indicators)와 형성적 지표(formative indicators)로 구분될 수 있다(Edwards & Bagozzi, 2000, 조형대, 2011 : 20).<sup>1)</sup>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에서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반영적 지표는 관찰변수가 잠재변수의 실제 값을 반영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관찰변수를 이의 기초가 되는 잠재변수를 경험적으로 반영하는 결과로 보며 잠재변수가 측정변수의 원인임을 가정한다(조형대, 2011). 반영적 지표모델에서 관찰변수

들은 모두 해당 잠재변수의 함수이므로 그 값들 간에는 내적일관성이 기대된다(이학식·임지훈, 2011 : 72-73). 따라서 본 연구에서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은 반영적 지표로 측정하였다.

형성적 지표는 관찰변수가 잠재변수의 값을 형성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형성적 지표에서는 관찰변수들의 설명적 결합을 통하여 잠재변수가 창출되기 때문에(윤만희, 2003: 170) 이 경우 잠재변수는 잠재요인(latent factor)이라기보다 각각의 변수들에 의해 결정되는 하나의 지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형성적 지표로 측정할 경우 집중타당성 또한 기대할 수 없으므로 내적일관성이 기대되지 않는다.(이학식·임지훈, 2011 : 73-74).

본 연구에서 구성한 부모자원은 개별지표인 학력, 결혼만족도, 의사소통이 축적되어 부모자원 전체의 수준을 만들어내는 것이므로 본 연구의 부모자원은 형성적 지표로 측정하였다. 이들 3개

1) 사회과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검사 척도들은 대부분 반영적 지표이므로, 형성적 지표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었으나, 척도의 지표 특성을 명확히 하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형성지표가 적합한 측정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반영지표를 사용하던가,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 모두를 측정 모델의 추정결과는 물론이고 이론변수들 사이의 추정결과를 크게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윤만희, 2003; 정은하, 2011 : 94 재인용).

〈표 3〉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N=603)

	Chi-square	df	p	TLI	CFI	RMSEA
측정모형	25.896	5	.000	.946	.973	.083

변수 중 어느 하나라도 그 값이 증가하면 부모자원의 값을 상승시킬 수 있다. 그러나 부모자원의 값이 증가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3개 변수 모두의 상승을 동반하지는 않는다. 반영적 지표의 경우 어느 한 측정항목을 제거하더라도 잠재변수의 본질적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형성적 지표에서는 한 지표를 제거하게 되면 구성개념의 한 부분이 제거될 수 있어 측정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다. 또한 형성적 지표에서는 구성개념을 형성하게 되는 관찰변수 사이에는 변수의 특성상 양(+), 음(-) 혹은 0의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윤만희, 2003) 부모자원 하위변수들은 낮은 상관관계임에도 그대로 사용되었다.

반영적 지표는 측정모형 검증을 통해 통계적으로 식별이 가능하지만, 형성적 지표는 다른 잠재변수들과 함께 구조모형 상에서만 모형식별이 가능하므로(Bollen and Lennox, 1991; Roy, S. & Tarafdar, M. & Ragu-Nathan, T. S. and Marsillac, E., 2012 : 38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반영적 지표를 사용한 변수를 가지고 측정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모형검증을 위해 카이제곱 값과 함께 표본 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며, 적합도 평가 지수의 기준이 확립된 RMSEA(Root Mean Error of Approximation),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itive Fit Index)를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Browne과 Cudeck(1993)에 따르면 RMSEA 값은 최소 .10이하를 기준으로 하며, 05 이하면 좋은 적합도, .10이상이면 부적절한 적합도이다. TLI와 CFI의 경우는 그 값이 .90이상이면 적합도가 좋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적합도 지수들을

바탕으로 측정모형 적합도를 측정한 결과 <표 3>과 같이 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square 값은 25.896(df=22)로 p값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이는 표본수가 크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검정력이 지나치게 증가하여 나타나는 특성이다(배병렬, 2007, 이주리, 2010 : 142 재인용).

한편 양육스트레스 하위요인들은 .44-.99의 요인부하량을 보였으며, 양육효능감에 대한 하위요인들은 .60-.82의 요인부하량을 지닌 것으로 나타나 Stevens(1992)가 제안한 최소 기준(0.4이상)에 부합하였다. 요인부하량은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따라서 측정모형검증을 통한 잠재변수의 구성이 타당함을 알 수 있었다.

### 3. 구조모형의 검증

본 연구에서 부모자원,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등의 변수로 구조화한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 <표 4>와 같이 모형이 비교적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이 만족할 만한 적합도를 보였기 때문에 연구모형에 따라 추정된 경로계수를 통해 모형의 모수 추정치를 살펴보았다. 아래의 <그림 1> 및 <표 5>에 제시된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부모자원은 양육스트레스에 부적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고, 양육효능감에는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자원이 풍성할수록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단 부모개인적 자원인 학력은 측정변수로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나 형성적 지표의 특성상 모형

〈표 4〉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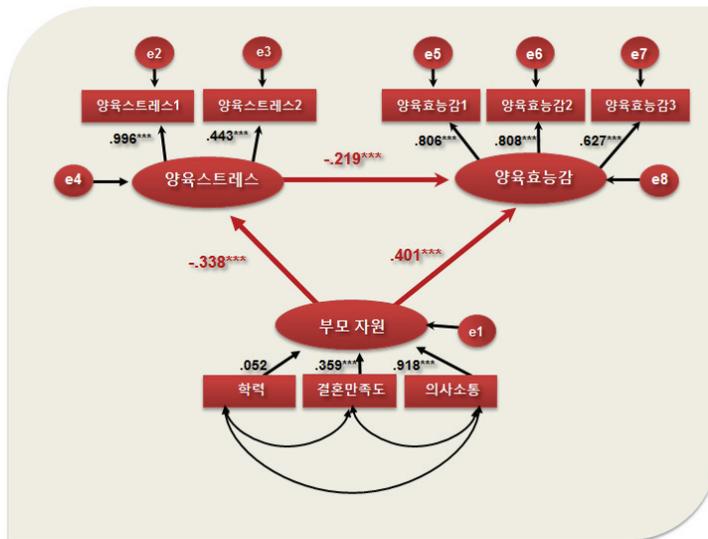
	Chi-square	df	p	TLI	CFI	RMSEA
구조모형	67.846	16	.000	.905	.946	.073

\* $p < .05$ , \*\* $p < .01$ , \*\*\* $p < .001$

〈표 5〉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비표준화계수(B)	표준오차(S.E)	표준화계수( $\beta$ )	CR
부모자원 → 양육스트레스	-.518	.061	-.338***	-8.422
부모자원 → 양육효능감	.397	.046	.401***	8.682
양육스트레스 → 양육효능감	-.141	.028	-.219***	-5.066

\* $p < .05$ , \*\* $p < .01$ , \*\*\* $p < .001$



〈그림 1〉 연구 모형

에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따라서 부모자원은 대인적 자원 중심으로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효능감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요 변인들의 직·간접 및 총효과를 살펴본 결과<표 6>, 부모자원은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부적 효과( $-.338$ )를 주고, 양육효능감에는 직( $.401$ )·간접( $.074$ )적으로 유의한 정적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자원은 양육효능감 향상에 직접적인 정적 효과를 주는 동시에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양육효능감에

(표 6) 주요 변인들의 직접·간접 및 총효과<sup>2)</sup>

(N=603)

독립변인	중속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부모자원	양육스트레스	-.338***	.000	-.338***
	양육효능감	.401***	.074***	.475***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219***	.000	-.219***

\* $p < .05$ , \*\* $p < .01$ , \*\*\* $p < .001$

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결과를 알 수 있다.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부정적(-.219)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양육효능감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요변인들 중 부모자원은 양육효능감에 직·간접적으로 정적인 큰 효과를 나타냈고, 총효과에 있어서도 가장 큰 효과성을 보이는 변인으로 도출되었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가족탄력성 관점을 바탕으로 저소득 가정의 부모자원,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알아보고, 이들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저소득 가정의 부모자원은 양육스트레스에 유의미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모자원을 구성하는 변인 중 부모개인적 자원인 학력은 부모자원의 측정변수로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나 형성적 지표의 특성상 모형에 포함시켜 분석하였고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부모자원의 유의성은 부모상호간의 자원과 부모자녀상호간의 자원인 대인적 자원 중심으로 해

석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양육에 있어서 부모의 관계적 특성이 중요함을 나타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자원의 구성요소이자 부모개인적 자원인 학력이 양육스트레스와 유의하지 않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박복매·문혁준, 2008)와 일치한 한편 부정적인 관계를 가진다고 보고해온 선행연구(김기현, 2000)와 일치하지 않은 결과이다. 동시에 부모상호간의 자원인 결혼만족도(박혜미, 1994; 전춘애·박성연, 1996), 부모자녀상호간의 자원인 의사소통(박복매·문혁준, 2008)과 양육스트레스의 부정적인 관계를 보고해온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가정의 소득수준 및 경제적 환경은 양육스트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어온(Alber, Jones, & Cohen, 2000; McLoyd, 1998 Raikes & Thomson; 2005)만큼 저소득 가정의 부모는 일반가정의 부모에 비해 높은 양육스트레스 수준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소득 가정의 부모자원이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가정에 비해 아동·청소년 부모의 지지가 낮은 수준으로 보고된(김현주, 2010; 임성옥박민정, 2011; 임세희, 2007) 저소득 가정에서도 부모의 인적자원은 중요한 잠재역량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저소득 가정의 부모자원은 양육효능

2) 간접효과와 총효과의 유의성 검증은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부트스트랩(Bootstrap)방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원 자료(N=603)에서 무선표집으로 생성된 10,000개의 자료표본을 모수추정에 사용하였고,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모든 간접 및 총효과의 경로계수가  $p < .001$  수준에서 유의했을 뿐 아니라 95% 신뢰구간에서의 간접효과 및 총효과의 크기가 0을 포함하지 않았다.

감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상호간의 자원인 결혼만족도(김정주, 김용미, 2008), 부모자녀상호간의 자원인 의사소통(김정호, 2010)과 양육효능감과의 정적인 관계를 보고해온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처럼 부모자원은 대인적 자원을 중심으로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영향을 주는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자원은 McCubbin과 Patterson (1983)의 가족스트레스이론인 Double ABCX model에서 가족 내에서 한 구성원이 경제적 어려움 등과 같은 스트레스원(stressor)에 의해 받는 부정적인 영향의 정도를 예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제시되며,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처요인이 된다. 본 연구에서 부모자원은 경제적 어려움의 위기가운데 있는 저소득 가정의 양육스트레스를 처리하기 위한 자원으로서 부모의 적응을 예견할 수 있는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키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구조모형인 저소득 가정의 부모자원,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의 관계의 검증결과 부모자원이 양육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로와, 양육스트레스를 통해 양육효능감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로 그리고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에 직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경로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자원은 양육효능감에 직접적으로 큰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양육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보다 부모자원이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자원의 결핍으로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정에서 부모의 비경제적 자원인 인적 자원을 대인적 자원 중심으로 강화하는 것은 양육

효능감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핵심 요인이 됨을 볼 수 있었다. 즉, 가족스트레스 이론을 확장시킨 가족탄력성 관점에서 부모자원은 이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잠재능력이자, 경제적 위기에서 오는 어려움에 대한 해결능력을 강화시키고 부모로서 바람직하게 적응하도록 돕는 탄력적인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가정 자원 중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인적 자원인 부모자원에 대한 이론적 기반의 확장을 제공하였다. 부모자원은 양육과 관련하여 가장 잠재성 있는 변인으로 탐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헌고찰결과 대부분의 연구에서 별도로 다루어지기 보다는 소득을 제외한 가정 자원의 측정도구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부모자원을 보다 구조화하여 측정하고 양육관련 변인들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본 연구는 비경제적 자원으로 부모자원의 영향력을 검증하고 잠재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연구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부모자원이 저소득 가정의 아동·청소년 부모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에 부적인 영향을 주며 양육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로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가족탄력성 관점에서 저소득 가정의 아동·청소년 자녀 양육에 있어 부모의 인적 자원을 대인적 자원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는 양육과 관련하여 영유아 자녀 부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다루어져 온 아동·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검증함으로써 가족생활주기별 효과적인 부모자원의 영향을 탐색하고 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 의미 있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특히 가족탄력성 관점을 활용한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사회적 지지와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데 집중한 것에서(조미경, 2011 : 324-325) 본 연구는 가정 안의 잠재적 자원인 부모자원의

탄력적 요인을 검증하여 가족탄력성 관점의 확대 적용을 위한 탐색자료로 활용하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의 자기보고식에 의한 질문지법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부모의 상황과 자원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직접면담을 통한 심층적인 조사가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에 응답한 아동·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나 주양육자가 어머니인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해 향후 주양육자에 따른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자녀양육에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이 중시되고 있는 점(최미경 외, 2008)에서 주 양육자에 따른 부모자원의 차이와 양육에 대한 영향을 함께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부모자원은 인적 자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크게 부모개인적 자원과 부모상호간의 자원, 부모자녀상호간의 자원으로 구조화하였다. 그러나 이들 중 부모개인적 자원인 학력은 유의하지 않은 측정변수로 나타남에 따라 본 연구에서 부모자원의 영향력은 대인적 자원을 중심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저소득 가정 아동·청소년 부모의 부모자원은 양육스트레스에 부적인 영향을 주고, 양육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부모자원으로 인한 양육스트레스의 부적 효과와 양육효능감의 정적인 효과가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부적인 효과보다 컸기 때문에 향후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부모의 대인적 자원을 강화하는 활용방안들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부모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이며 주된 사회적 지지의 원천이 된다(신현균, 2009 : 1085). 가족탄력성 관점에서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위기를 보다 탄력적으로 극복하게 하는 부모자원은 부모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잠재된 능력으로서 아동·

청소년 부모가 직면하는 여러 어려움 및 문제해결능력을 강화시키고 바람직한 가족의 적응을 돕는 중요한 강점요인으로서 적극적인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김광혁(2007).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청소년기 아동의 학업성취도 발달के迹에 미치는 영향 -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 아동학회지, 28(5), 127-141.
- 2) 김기현(2000).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 탐색. 한국생활과학회지, 9(1), 71-84.
- 3) 김도희·이경은(2010). 다문화 가정 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에 관한 경로분석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2), 77-98.
- 4) 김명순·김길숙·손승희·유정은·이민주·이윤선·조항린·한찬희(2010). 저소득·일반 가정 영유아의 언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언어 관련 놀잇감 및 부모-자녀 관계 관련 변인 연구. 아동학회지 31(4), 61-74.
- 5) 김명자·계선자·강기정·김연화·박미금 외 (2009). 이는 만큼 행복한 결혼 건강한 가족. 서울 : 양서원.
- 6) 김미숙·문혁준(2005).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및 양육 효능감과 양육 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3(8), 25-35.
- 7) 김은한·유서구(2012). 가족탄력성이 빈곤아동의 사회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35, 145-171.
- 8) 김정주·김용미(2007). 아버지의 역할수행, 결혼만족도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의 관계. 한국영유아보육학, 50, 113-129.
- 9) 김정효(2010). 부모의사소통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효

- 과.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0) 김주환 · 홍세희 · 김민규(2009).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 11) 김지현(2011).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효능감, 부모역할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9(5), 49-57.
  - 12) 김미옥(2001). 장애아동가족의 적응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 : 가족탄력성 (Family resilience)의 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3) 김신정 · 김영희(2007).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고찰. 부모자녀건강학회지, 10(2), 172-181.
  - 14) 김진이(2011).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소득 집단 간 경로차이 분석-. 한국아동복지학, 38, 101-132.
  - 15) 김현미 · 도현심(200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5(6), 279-298.
  - 16) 김현주(2010). 사회적 지지가 지역아동센터 이용 빈곤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7(2).
  - 17) 문태형 (2002). 어머니의 사고양식 및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3(6), 49-63.
  - 18) 문혁준(2004).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대한가정학회지, 42(11), 109-122.
  - 19) 박복매 · 문혁준(2008).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의사소통 지향성과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6(10), 11-22.
  - 20) 박주연 · 김경신(2012). 가족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한부모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7(1), 23-46.
  - 21) 박지현 · 김태현(2011). 중년기의 가족스트레스 및 가족탄력성이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6(1), 229-257.
  - 22) 박창남 · 도종수(2005).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 22, 282-303.
  - 23) 박현선(1998). 빈곤 청소년의 학교 적응유연성(Resilience) 발달메커니즘. 청소년학연구, 5(3), 147-165.
  - 24) 박혜미(1994). 어머니의 양육행동, 남녀 유아의 스트레스 및 문제행동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5) 방한별 · 박정운 · 김양희(2008). 아버지의 양육태도 및 양육스트레스와 부모교육 요구도에 관한 연구 -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4), 103-116.
  - 26) 보건복지부(2012). '2011 저출산·고령화 국민 인식 조사'. 보건복지부.
  - 27) 성지현 · 백지희(2011). 한국관 양육 효능감 척도(K-EGSCP)의 타당화 연구: 영역별 양육 효능감과 관련 인지구조 척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4(4), 135-150.
  - 28) 송미혜 · 송연숙, 김영주(2007). 유아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2(5), 165-183.
  - 29) 신현균(2009). 아동, 청소년의 생활 스트레스, 부모 양육방식 및 부정적 자동적 사고 간 관계 : 연령과 성에 따른 부모 양육방식의 중재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28(4), 1183-1105.
  - 30) 안지영(2001).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1) 안지영 · 박성연(2002). 2 ~ 3 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신념 ,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1), 53-68.

- 32) 양선미 (2007). 어머니의 취업형태에 따른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인성특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3) 옥경희 · 천희영(2011). 가구소득에 따른 부모관계와 자녀가치 및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영아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 비교 연구. 아동학회지, 33(1), 205-221.
- 34) 윤만희(2003) 서비스 공정성 개념의 대안적 측정이 신뢰와 고객의 자발적 행위 측정에 미치는 영향 : 반영적지표 측정모델과 형성적지표 측정모델의 비교". 경영연구, 18(4), 167-194.
- 35) 이경선(2011).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타일 관련 변인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8(3), 127-145.
- 36) 이경하 · 서소정(2009). 영아 및 어머니의 사회인구적 특성 변인,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가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7(3), 87-102.
- 37) 이명숙 · 이미선 · 이정우(2003).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특성 · 가족역동성 및 가족자원만족도 - 안성지역 중 · 고등학생과 부모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7(1), 61-76.
- 38) 이선애(2009). 가족자원 및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4(1), 5-24.
- 39) 이은우(2006). 중학생 가정의 소득 및 사교육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3(6), 247-274.
- 40) 이인학 · 박지은 · 최성열(2010). 영아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아동교육, 19(4), 81-91.
- 41) 이정신 · 최영희(2010).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원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3(1), 19-32.
- 42) 이주리(2009).이혼가정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자원. 아동과 권리, 13(3), 399-415.
- 43) 이주옥(2008).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의 비교, 영유아교육연구, 11, 41-81.
- 44) 이지혜 · 김정옥(2009).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사회성 발달 및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3), 61-89.
- 45) 임성옥 · 박민정(2011).부모의 양육태도유형과 청소년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 간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빈곤청소년과 일반청소년 집단비교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8(10), 203-226.
- 46) 임세희(2007). 장기빈곤이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부모자녀관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4(가을), 55-78.
- 47) 장성애 · 유연옥(2008). 적극적 부모역할 훈련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17(3), 187-202.
- 48) 전인옥 · 이경옥(1999). 유아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인과모형 탐색 - 사회경제적 지위 , 어머니의 교육신념과 양육에 대한 자기효능감 - 양육행동의 영향을 중심으로 - . 유아교육연구, 19(1), 169-187.
- 49) 전주혜 · 박정윤(2010).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원가족 경험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4), 127-150.
- 50) 정선영 · 정현숙(2012). 결혼이주 어머니와 선주민 어머니의 양육행동 비교 : 양육신념과 양육지식의 매개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38, 39-65.
- 51) 조미경(2011). 취약한 장애아동 부모가 인식한 가족탄력성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

- 과학연구 27(1), 323-349.
- 52) 조성희(2003). 방문간호 대상노인의 가족자원 특성과 서비스 이용실태에 대한 분석: 충남 아산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2, 155-178.
- 53) 조형대(2011). 교육학 분야에서 구조방정식 활용의 문제점과 대안제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4) 최미경 · 김정희 · 구현경 · 박선영 · 한현아 · 최단비(2008). 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와 부모교육 지식 수준 및 요구도. *아동학회지*, 29(5), 227-242.
- 55) 최형성(2002).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및 스트레스와 아동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56) 추상엽 · 임성문(2007). 가족구조와 고등학생의 학업성취간의 관계: 부모소득, 학업지원행동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4(3), 143-157.
- 57)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2012 '미래 국가인구전략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58) 한주리 · 허경호(2004) 아내와 남편의 의사소통 능력, 논쟁성향 및 성격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한국방송학보*, 18(4), 148-190.
- 59) 홍영란(2009).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학령기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간호학회지*. 15(4), 392-400.
- 60) 홍순혜 · 이숙영(2009). 주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가 빈곤가족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방임과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동복지학*, 28, 137-169.
- 61) Aber, J. L., Jones, S., & Cohen, J.(2000). The impact of poverty on the mental health and development of very young children. In C. Zeanah (Ed.), *Handbook of infant mental health*, (pp. 113-128). New York : Guilford.
- 62) Abidin, R. R.(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4), 407-412.
- 63)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64) Battle, J.(2002). The increasing significance of class : The relative effects of race and socioeconomic status on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Poverty*, 6(2). 21-35.
- 65) Brown, M., & Cudeck, R.(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136-162). Newbury Park, CA : Sage.
- 66) Crnic, K. & Acevedo, M.(1995). Everyday stresses and parenting.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pp. 277-297). Mahwah, NJ : Lawrence Erlbaum.
- 67) Conger, R., Ge, X., Elder, G., Lorenz, F., & Simons, R.(1994). Economic stress, coercive family process, and developmental problems of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5(2), 541-561.
- 68) Conger,R., & Conger,K.(2002). Resilience in Midwestern families: Selected findings from the first decade of a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Marriage & Family*, 64(2), 361-372.
- 69) Cowan, C. P., & Cowan, P. A.(1988). Who does what when partners become parents : Implications for men, women, and marriage. *Marriage & Family Review*, 12, 105-131.
- 70) Deacon, R, E. & Firebaugh, F, M.(1988). *Family Resource Management : Principles*

- and Applications. Boston : Allyn and Bacon, Inc.
- 71) Eamon, M, K.(2005). Social-demographic, school, neighborhood, parenting influences on the academic achievement of Latino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4(2), 163-174.
- 72) Elder, G., Eccles, J., Ardel, M., & Lord, S.(1995). Inner-city parents under economic pressure: Perspectives on the strategies of parenting.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7, 771-784.
- 73) Finn, J. & Checkoway, B.(1998). Young People as Competent Community Builders: A Challenge to Social Work. *Social Work*, 43(4), 335-345.
- 74) Gross, I, H., Crandall, E. W., & Knoll, M. M. (1980). *Management for Modern Families*, 4th ed., Prentice-Hall, Inc. : N.J.
- 75) Mash, E. J., & Johnston, C.(1983). Parental perceptions of child behavior problems, parenting self-esteem, and mother's reported stress in younger and task situation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2, 337-346.
- 76) Masten, A. S., Best, K. M., & Garmezy, N.(1990). Resilience and development: Contribution from the study of children who overcome adversit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 425-444.
- 77) McCubbin, H. I., & Patterson, J. M. (1983). The family stress process : The Double ABCX Model of family adjustment and adaptation. In H. I. McCubbin, M. Sussman, & J. M. Patterson (Eds.), *Social stress and the family: Advances and developments in family stress theory and research*, 7-37. New York: Haworth.
- 78) McCubbin, H. I. & McCubbin M. A.(1988). Typologies of resilient families: Emerging roles of social class and ethnicity. *Family Relations*, 37, (3), 247-254.
- 79) McCubbin, H. I., McCubbin, M. A, & Tompson, A. I.(1993). Resiliency in Families : the role of family schema and appraisal in family adaptation to crises. In T. H. Brubaker(ed), *Family Relations : Challenges for the future*, Newbury Park CA : Sage Publications.
- 80) McLoyd, V. C.(1998). Socioeconomic disadvantage and child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3(2), 185-204.
- 81) Nunnally, J. C.(1967). *Psychometric Theory*. New York, McGraw-Hill.
- 82) Hawley, D, R & DeHaann, L(1996). Toward a definition of family resilience: intergrating life-span and family perspectives, *Family Process*, 35(3). 283-298.
- 83) Johnston, C., & Mash, E. J.(1989). A measure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 167-175.
- 84) Johnson, K., Bryant, D, D., Collins, D, A., Noe, T, D., Strader, T, N., Berbaum, M.(1998). Preventing and Reducing Alcohol and Other Drug Use among High-Risk Youths by Increasing Family Resilience. *Social Work*, 43(4), 297-308.
- 85) Leerkes, E. M., & Crockenberg, S. C.(2002). The development of maternal self-efficacy and its impact on maternal behavior. *Infancy*, 3(2), 227-247.
- 86) Lin, S, L.,(2000). Coping and adaptation in family of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Exceptional Children*, 66, 201-218.

- 87) Roy, S. & Tarafdar, M. & Ragu-Nathan, T. S. and Marsillac, E. (2012). The Effect of Misspecification of Reflective and Formative Constructs in Operations and Manufacturing Management Research. *The Electronic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Methods*, 10(1), 34-52.
- 88) Salami, S. O.(2010). Moderating Effects of Resilience,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on Adolescents' Reactions to Violence. *Asian Social Science*, 6(12), 101-110.
- 89) Stevens, J. P.(1992). *Applied multivariate statistics for the social sciences* (2nd edition). Hillsdale, NJ : Erlbaum.
- 90) Teti, D. M. & Gelfand, D. M.(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in the first year : Meditat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 918-929.
- 91) Voydanoff, P. & Donnelly, B, W.(1998). Parent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as Predictors of Parental Well-Being and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0(2), 344-355.
- 92) Walsh, F.(1998). Editorial : The Resilience of the Field of Family Therap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4, 269-271.
- 93) Walsh, F.(2002). A Family Resilience Framework: Innovative Practice Applications. *Family Relations*, 51(2), 130-137.

- 투 고 일 : 2013년 1월 1일
- 심 사 일 : 2013년 1월 11일
- 심사완료일 : 2013년 2월 18일